

코웨이, 넷마블과 구로서 ‘한지붕’... “혁신 시너지 연다”

코웨이 22일 넷마블 신사옥 입주 게임 디바이스-스마트홈 ‘융합’ 디지털 혁신위해 ‘DX센터’ 설립 “글로벌 ‘뉴코웨이’로 발돋움”

코웨이가 대주주인 넷마블과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연초부터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넷마블 출신의 부사장을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한데 이어 역시 넷마블의 인공지능(AI) 센터장을 새로 신설한 통합 IT 전담조직인 ‘DX(Digital Transformation)센터’ 수장으로 임명된뒤 이번엔 물리적 결합을 위해 사옥까지 합치면서다.

8일 코웨이에 따르면 코웨이는 오는 22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넷마블 신사옥으로 1000여 명의 임직원들이 이전하고 ‘뉴 코웨이’로 새롭게 출발한다.



코웨이가 이달 22일 입주하는 넷마블의 구로 신사옥 ‘G타워’.

코웨이는 현재 중구 서소문로 서소문빌딩에 터를 잡고 있다.

코웨이가 입주하는 넷마블 신사옥 ‘G타워’는 지상 39층, 지하 7층 규모로 전체 면적은 18만㎡ 규모에 달한다. 신사옥에는 코웨이 임직원 뿐만 아니라 넷마블, 다양한 IT와 디지털 콘텐츠를 아우르는 회사들이 입주할 예정으로 구로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

코웨이 관계자는 “신사옥에서 혁신 디지털 인프라를 바탕으로 미래 경쟁력을 강화시켜 넷마블과 함께 새로운 혁신 시너지 시대를 펼쳐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 G타워를 전초기지로 삼아 글로벌 환경가전기업으로 힘차게 발돋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코웨이는 이번 업무 공간 통합을 계기로 양사간 소통과 업무효율을 강화하며 넷마블의 혁신 DNA를 비즈니스 전반에 긴밀히 접목시켜 시너지 창출을 본격화하고 글로벌 환경가전 기업으로 도약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양사간 시너지 효과 모색은 올해들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코웨이는 지난 1월 초 최고재무책임자(CFO)였던 서장원 부사장을 신입 각자 대표이사로 내정했다. 서 신임 대표는 넷마블에서 투자전략·커뮤니케이션 담당 부사장과 넷마블문화재단 대표이사를 거쳐 넷마블이 코웨이를 인수한 이후부터 경영관리본부장(부사장)을 역임했다. 이에 따라 코웨이는 서 대표와 기존 이해선 대표가 각자 대표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코웨이는 또 1월 말엔 디지털 역량을 가속화하기 위해 ‘DX센터’를 신설하고 넷마블 AI센터장인 김동현 상무를 초대 센터장으로 앉혔다.

코웨이는 DX센터를 통해 빅데이터, AI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전환을 추구하고 사물인터넷(IoT), AI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제품과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DX센터를 강화하기 위해 AI, IoT, 빅데이터, 머신러닝, 클라우드 등의 전문인력 200여 명도 상시 채용하고 있다.

넷마블은 코웨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2019년 10월 당시 코웨이 인수 목적에 대해 렌탈 및 구독경제 1위 기업에 자사의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의 기술을 결합해 2023년 전세계 기준 약 2000억 달러로 추산되는 스마트홈 시장의 글로벌 회사로 키운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넷마블이 게임 디바이스를 통해 확보한 유저 빅데이터 분석 및 운영 노하우를 코웨이의 모든 디바이스에 접목해 글로벌 수준의 스마트홈 디바이스로 탈바꿈시켜나간다는 것이다. 넷마블은 코웨이 지분 25.08%를 보유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개성공단 중단 5년... 10곳 중 8곳 ‘매출 타격’ 1인 창조기업 85% “코로나에 어려움 겪어”

중기중앙회 입주사 111곳 설문 휴면기업 11곳, 폐업기업 5곳 92% ‘재가동시 재입주 희망’

박근혜 정권에 의해 개성공단이 폐쇄된지 5년이 지난 가운데 입주기업 10곳 중 8곳 가량이 매출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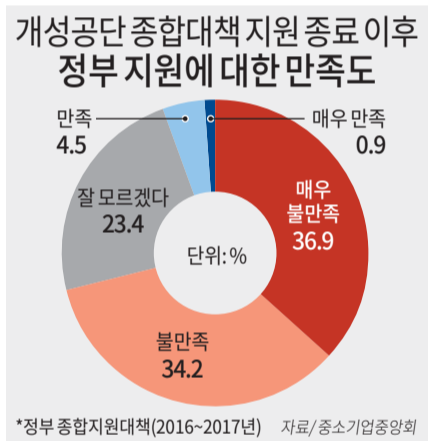
5곳은 문을 닫았고, 11곳은 서류상으론 기업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10곳 중 9곳은 개성공단이 재개될 경우 ‘재입주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24개 개성공단 입주사 가운데 111개를 대상으로 ‘개성공단 가동중단 5주년 조사’를 실시, 8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경영하고 있는 기업은 99곳, 서류상 유지중인 휴면 기업은 11곳, 폐업기업(미응답 기업 포함)은 5곳으로 각각 집계됐다.

개성공단 폐쇄가 5년째 이어지면서 기업들은 매출액 하락 등 경영에 치명타를 입고 있는 모습이다.

응답기업 가운데 매출액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2015년 당시 106억7000만원에서 지난



해 66억원으로 38.1% 감소했다. 특히 매출액 50억원 미만 소기업의 경우 같은 기간 평균 65억3000만원에서 15억6000만원으로 76.1%나 줄어 영세기업일 수록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기업들은 가동이 중단된 이후 ‘민간 내수판매 확대’(79.3%), ‘수출 또는 해외진출’(36.9%), ‘방역용품 등 신규사업 진출’(26.1%) 등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8.7%는 부채가 늘어나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등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도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 대부분이 즉시 또는 시간차를 두고 ‘재입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즉시 재입주하겠다’는 곳이 38.7%, ‘정부와 북측의 재개조건에 따라 상황판단 후 입주하겠다’는 곳이 53.2%로 응답기업의 91.9%(103곳)가 ‘재입주’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입주 의향 없음’은 1.8%(2곳)에 그쳤다.

그러나 재입주한다고 하더라도 비용 등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기업들은 재입주에 따른 예상비용으로 설비 유지보수 11억7000만원, 추가 투자금액 12억9000만원 등 총 24억6000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이런 가운데 남북경협 재개를 대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정부 정책결정에 대한 피해보상 근거 마련’(45.9%)이, 입주기업에 대해 가장 조속히 이뤄져야 할 사항으로는 ‘설비점검 및 현황파악을 위한 방북’(45.9%)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승호 기자

중기부 조사, 평균 매출 2.4억

1인 창조기업이 42만개를 훌쩍 넘어섰다. 이런 가운데 10곳 중 8곳 이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1곳당 평균 매출은 약 2억4000만원, 평균 고용인원은 2.29명이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18년 기준으로 집계해 8일 발표한 ‘2020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1인 창조기업 숫자는 총 42만7367개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기존의 창조기업 실태조사에선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명부를 활용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부터는 ‘중소기업 기본통계’와 같이 기업 단위 통계인 기업통계등록부(2018년 기준)로 바뀌 통계를 보다 정확하게 산출했다.

‘기업통계등록부’는 사업자등록, 4대 보험 등 행정자료와 전국사업체조사를 결합한 기업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기준이 바뀐에 따라 2017년에 28만856개이던 1인 창조기업 숫자는 2018년

엔 42만개를 훌쩍 넘어섰다.

다만 같은 기준인 기업통계등록부와 비교하면 40만2612개인 2017년보다 1년새 2만4755개로 6.1% 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0.9%로 가장 많았고 교육 서비스업(2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10.1%),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8.7%) 순이었다.

1인 창조기업들의 평균 매출액은 2억4300만원으로 조사됐다. 평균 고용인원은 2.29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1인 창조기업의 경우 추가 고용을 통해 인원이 늘어도 3년간은 ‘1인 기업’으로 인정한다.

대표자의 평균 연령은 51.1세, 평균 업력은 12년이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영향에 대해선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답변이 84.5%로 나타났다.

대응 방안으로는 ‘신규 판로 개척’(45%), ‘비대면 서비스 강화’(20%), ‘제품·서비스 변경’(11.5%) 순이었다. /김승호 기자

기정원 벤처·중소 러 진출 지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이 중소·벤처기업들의 러시아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기정원은 ‘2021년 해외 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사업 공고’를 실시하고 8일부터 4월21일까지 참여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자격은 수요·공급기술을 보유한 러시아 기업으로부터 ‘기술협력의향서’를 확보한 중소벤처기업이 대상이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는 2년간 최대 4억원 이내의 출연금을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기보, 혁신스타트업 판로지원 팔 걷어

공공구매 특례보증 시행

기술보증기금이 혁신 스타트업들의 판로 지원을 위해 추가로 나섰다.

스타트업들의 납품 제품에 대해 100% 환불 보증해 공공판로를 지원키로 하면서다.

기보는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지만 납품실적이 없는 스타트업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도와주기 위한 ‘공공구매 특례보증’을 8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수요자인 공공기관이 스타트업 혁신제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보가 계약금액을 대신 환불해주는 것이 골자다.

기보는 우선 스타트업의 기술력과 납품능력 등을 독보적인 평가시스템으로 평가하는 사전심사절차를 통해 ‘기술보증 예정확인서’를 발급, 구매자인 공공기관이 납품기업인 스타트업과의 계약 체결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혁신제품의 납품 이후 하자, 계약미이행 등 문제 발생 시 기보가 공공기관에 계약금액 전액을 환불·보증해 구매자인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호 기자

청호나이스 ‘뉴 히어로S 공기청정기’ 출시

청호나이스가 ‘청호 뉴히어로S 공기청정기’ (사진)를 새로 출시했다.

8일 청호나이스에 따르면 이 제품은 지난해 10월 출시한 이후 누적판매 1만대를 돌파한 ‘청호 뉴히어로 공기청정기’처럼 원통형으로 디자인해 360° 전 방향에서 실내 구석구석의 먼지를 흡입하고, 필터를 통과한 청정공기를 좌·우·상의 세 방향으로 내보내는 것이 특징이다. 청정공기를 내보낼 때 제품상단의 그릴이 회전하는 회전무빙 방식을 적용, 깨끗한 공기를 자연스럽게 순환시키며 실내공기를 효율적으로 정화한다.

‘청호 뉴히어로S 공기청정기’의 필터는 계절에 맞게 제공되는 세가지 타입의 기능성 미디엄필터, 초미세먼지 집진필터, 탈취필터로 구성했다. 이 가

운데 기능성 미디엄필터 3종인 ‘탈취강화필터’, ‘황사방지필터’, ‘집진강화필터’는 계절별 상황에 맞게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